

못에 대한 예의

정 해 현 (시인, 창릉동주민자치회 부회장)

하릴없이 헛심 쓰느냐는 핀잔인지
방 마루 뜯은 폐목 못 뽑는 등 뒤로 아내가 한마디 한다
핀 목이 정하게도 많네

집 비우던 날 아파트로 간다는 전 주인이 글썽하며 말했다
물려받은 건 몸통이 뿐이었다우
손바닥만 해도 내 집이다
이사 올 때 참말로 세상 다 얻은 것 같았제
좁아도 삼남매가 잘 자라주었어

묶고 세우고 버티고 걸어야 할 때마다
식구들이 부르면
아버는 팡팡 주눅을 깨며 못을 박았으리

콩씨 호박씨 옥수수 매주도 푸르게 매달고
어느해 장마철 빨랫줄 굽게 버티고
신주머니 모자 옷걸이
아이들 키 따라 올라갔을 무수한 못에
소리들이 커켜어 걸려 있다반듯한 못도 옥아든 못도
충직했던 시선들을 뽑아 담는다

늙은 아비의 주름과
관에 누운 녹슨 못들이 비로소 편안하다

내 못들에게도 자유를 줄 차례다

밥알머니 안웃 설경, [사진] 박용무(朴用武): 사진작가, 1946년생. 명동-을지로 사진교실 지도교수

고양시 첫 관문, 용머리 마을

창릉동자치신문

2023년 겨울호(통권 제8호)

창릉동주민자치회 전략체계

앵봉산 해돋이와 창릉천 해넘이

2023년 사업소개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상

2023년 마을축제



임 현 철
창릉동주민자치회 회장

주민 여러분의 격의 없는 응원과 참여는
우리 마을이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고양특례시에는 모두 44개 동에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이 중 우리 창릉동주민자치회는 고양특례시 내에서 가장 오래 되고, 자치사업이 가장 활성화된 주민자치회입니다.

창릉동주민자치회는 2023년 한 해도 여느 해 못지않게 바쁘게 뛰었습니다. 정원대보름 연날리기 행사를 시작으로 밥할머니공원에 무궁화나무 심기, 독서동아리 운영, 공감 플러스, 행복한 음악회, 반려견 에티켓 세미나,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고추장 담그기, 마을축제 및 주민총회 등 많은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창릉동주민자치회가 이렇듯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의 격의 없는 응원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울러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창릉동 통장협의회, 새마을 지도자회 및 부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민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 방위협의회, 체육회 등의직능단체 간의 상호협력도 큰 몫을 담당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창릉동주민자치회 위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4,000여 명의 주민이 사는 우리 창릉동은 용두동과 동산동이 함께 하는 전통적인 도농복합 마을이며, 유네스코 문화유산 서오릉과 지방문화재인 밥할머니 석상, 그리고 핫 플레이스 스타필드가 있는 복합문화 마을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창릉천이 흐르고, 남쪽으로는 앵봉산이 자리하고 있는 자연친화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마을에 비해 주민들의 정주의식이 높은 관계로 주변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릉동주민자치회는 마을의 품격을 높이고, 주민들의 자긍심을 키우는 일에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릉동주민자치회 전략체계

Vision

溫故知新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마을
온 고 지 신



Mission

3C 솜씨

Communication 소통

만남시다!

계층간 공감 플러스
용머리 축제 계승

Change 변화

느낌시다!

마을역사 바로 알리기
미래 동량 참여 확대

Consideration 배려

나눔시다!

밥할머니 정신 보급
행복 나눔 사업화

Action

과제발굴
조사

타당성
검토

사업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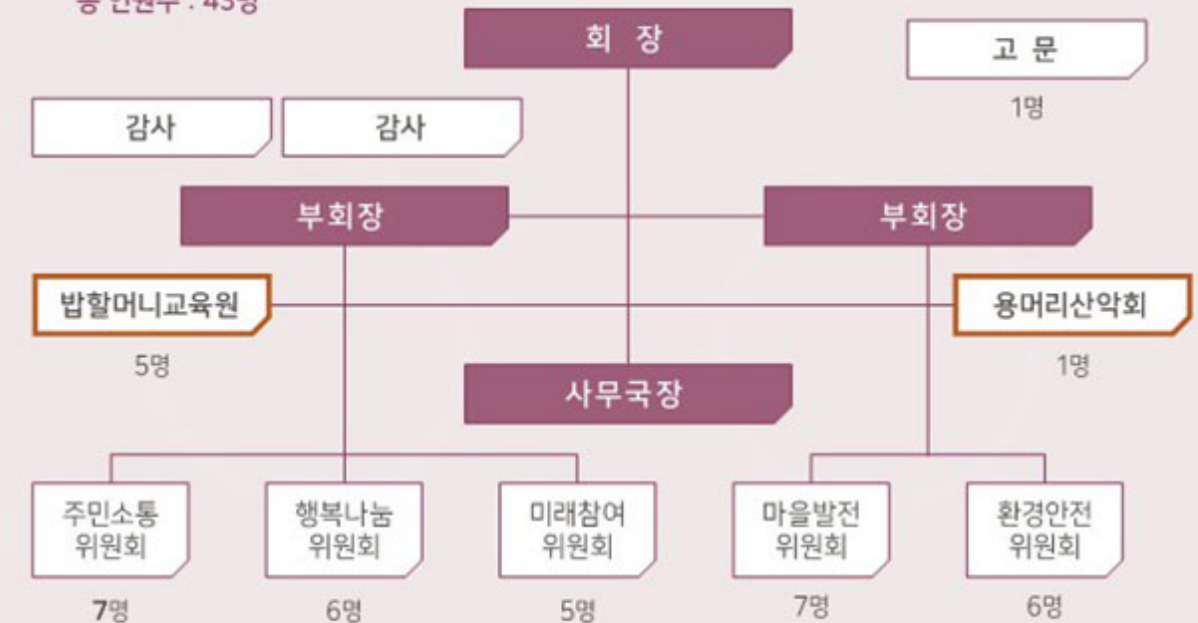
협의체제
구축

업무분장
시행

평가
피드백

창릉동주민자치회 조직도

5개 분과위원회, 2개 별정조직
총 인원수 : 43명



창릉동은 법정동인
용두동과 동산동이 합쳐진 행정동
자연부락과 아파트 주민이 공생하는
도농복합 마을

고양특례시 동쪽 끝에 있는 우리 마을 창릉동은 법정동인 용두동과 동산동이 합쳐진 행정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을 '고양시 첫 관문, 용머리 마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인구가 다섯 배 이상 급증해 현재 우리 창릉동에는 23,0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50대 중심의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주민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지금은 30대 중심의 사무 전문직, 서비스 업종을 생업으로 하는 주민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3개교에 이르는 만큼 젊은 가정의 이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타필드 고양점에 반력저 출입이 가능한 관계로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의 밀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창릉동 주요시설

학 교	동산초등학교, 용두초등학교, 창릉초등학교, 동산고등학교
공공시설	동행정보자센터, 도서관, 반려견놀이터, 수질복원센터, 밥할머니보존회 등
문 화 재	서오름, 밥할머니석상, 동산동 비석군, 명숙궁주묘, 이균생묘 등
체육시설	운동장, 파크골프장, 배드민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등
금융기관	신도농협(동산지점, 동산마을지점, 용두지점, 하나로마트점) 기업은행 테크노밸리지점, 우리은행 MBN지점
기 업	스타필드, 하나로마트, 지역난방공사, 테크노밸리, 123골프장 등
기 타	전래놀이터, 버스킹공연장, 아트홀, 영화관, 갤러리 등

10년 간 인구증가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인구	10,637	11,688	12,474	13,195	14,737	19,582	21,035	23,536	23,976	23,277
0~9세	1,231	1,427	1,582	1,676	1,771	2,404	2,569	2,743	2,741	2,480
10대	969	1,056	1,113	1,198	1,286	1,494	1,513	1,708	1,835	1,767
20대	1,226	1,361	1,391	1,396	1,625	2,285	2,371	2,485	2,370	2,302
30대	1,868	2,025	2,122	2,218	2,657	4,392	4,668	5,489	5,463	5,196
40대	1,703	1,932	2,086	2,306	2,544	3,432	3,641	4,154	4,311	4,259
50대	1,822	1,821	1,877	1,938	2,122	2,510	2,649	2,978	3,105	3,999
60대	1,002	1,185	1,335	1,424	1,553	1,913	2,095	2,373	2,443	2,402
70대~	816	881	968	1,039	1,179	1,422	1,529	1,606	1,708	1,772

(2023년 12월 말 기준)

이렇듯 우리 창릉동으로 전입하는 주민이 늘면서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간극도 일정 부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이어 대단위 오피스텔이 새롭게 들어서다보니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자연부락 주민들 입장에서 생활 및 안전을 위한 편의시설의 열악함에 개선의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반면, 오피스텔 단지에서는 주민간 교류를 위한 문화공유공간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고양시 첫 관문
응머리 마을

우리 마을은 10여 년 전만 해도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습니다. 창릉천 쪽으로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스타필드가 개장되면서 도농(都農)복합마을로 변했습니다.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상생과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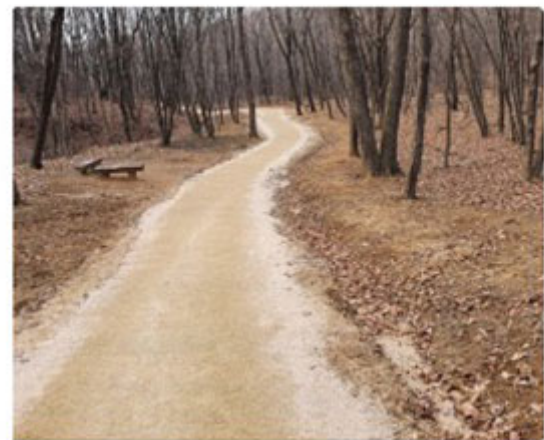
우리 마을 창릉동에는
보물과도 같은 명소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가족 및 친구,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마을 곳곳을
마음먹고 한 바퀴를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정겨운 곳이 많다는 걸 느끼면서
많은 이야기거리가 생성될 것입니다.



용두동 화원거리



별궁(밥할머니)도서관



서오름 서아나무길



동산꽃밭이공원



밥할머니 연못



앵봉산 전망대



덕수공원 반려견 놀이터



파크골프장



연초, 해발 235.1m 앵봉산 정상에서 촬영한 일출 장면이다. 앵봉산은 동산동과 용두동을 잇는 마을 산이다.



2023년 해넘이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창릉천 다리 위에서 노을은 바라보면 그 아름다움이 더 하다.

[사진] 박용무(朴用武) : 사진작가, 1946년생. 명동-을지로 사진교실 지도교수



서오릉 이야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충효(忠孝) 배우며 산책하기 좋은 명소

서오릉(西五陵)은 고양시 서쪽에 있는 다섯 개의 왕릉을 일컫는 곳으로 우리 마을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오릉은 세계문화유산이자 사적 198호로 지정된 역사 문화적으로 매우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조선왕릉 중 구리시에 위치한 동구릉(東九陵)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조선왕실 무덤입니다.

조선의 7대 임금 세조의 말아들 의경세자(추존 덕종)와 소혜왕후 한씨가 묻혀 있는 경릉(敬陵), 8대 임금 예종과 안순왕후 한씨가 묻혀 있는 창릉(昌陵), 19대 임금 숙종과 인현왕후 민씨, 인원왕후 김씨가 묻혀 있는 명릉(明陵), 숙종의 원비인 인경왕후 김씨가 묻혀 있는 익릉(翼陵), 21대 임금 영조의 왕비 정성왕후 서씨가 묻혀 있는 홍릉(弘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대 임금 명종의 아들 순회세자와 공혜빈 윤씨가 묻혀 있는 순창원(順昌園), 영조의 후궁 영빈이씨가 묻혀 있는 수경원(綏慶園)이 있으며, 사극의 단골소재로 자주 나오는 장희빈의 무덤인 대빈묘(大嬪墓)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덤의 이름이 다른 것은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품격에 따라 무덤을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왕과 왕비의 무덤을 능(陵)이라 하고, 왕의 생모, 왕세자, 빈의 무덤은 원(園)이라 하며, 대군, 공주의 무덤은 묘(墓)라 합니다.

서오릉은 계절마다 특색 있는 산책 코스를 제공합니다. 정문에서 명릉, 순창원, 경릉, 대빈묘를 둘러보고 창릉까지 갔다가 다시 서어나무길로 익릉, 수경원을 거쳐 정문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쉬엄쉬엄 편안한 걸음으로 두 시간 남짓 소요됩니다. 일일 산책 코스로 이만한 데도 없습니다. 덕분에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밥할머니 석상 이야기

참여와 나눔을 실천한 임진왜란 때 여성의병장 매년 10월 밥할머니 추향제 지내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밥할머니 공원에 위치한 고양 밥할머니 석상은 인근에 있는 동산동 비석군과 함께 고양시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향토문화재 제46호인 고양 밥할머니 석상은 조선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에 서울 북서부 지역과 고양 일대에서 활약한 해주씨 여성의병장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석상으로, 독특성, 희귀성, 역사성에 있어 뛰어난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양 밥할머니 석상은 현재 얼굴 부분이 소실된 상태입니다. 일제 때 일본에 의해 훼손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행주대첩 때 밥할머니에게 당했던 양강음이었고, 민중의 봉기를 우려한 일본이 이를 차단하려 만행을 저질렀다고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밥할머니 석상의 팔목과 어깨 등은 매우 풍만해 전체적으로 얇은 곡선들이 몸을 휘감은 듯 보입니다. 손 모양의 경우 오른 손은 시무외인(施無畏印)을 하고 악함을 바치고 있



습니다. 입상으로 추정되는데, 무릎 아래 부분이 훼손되어 정확한 원형을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문화재의 관리에 소홀했다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조선조 중기 역사보살상의 모습으로 세워진 밥할머니 석상은 고양지역 유일한 석상입니다. 여성의병장 밥할머니 석상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 보았을 때 지혜와 용기, 참여와 나눔을 실천한 밥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국가의 배려 속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밥할머니공원에서는 매년 10월 10일 전후로 해서 밥할머니의 시대정신을 기리는 추향제(추향제)가 열립니다. 올해에는 10월 14일에 제19회 추향제를 봉행했습니다.

밥할머니 석상 동북쪽에는 향토문화재 제47호인 동산동 비석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고양시 향토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향토문화재 제47호인 비석군은 당시 경기관찰사 오정일 공의 청덕흠민선정비(淸德恤民善政碑)와 고양지역 주민들이 헌신한 덕수자씨교비명(高楊德水慈氏橋碑銘), 그리고 고양군수 엄찬의 공적비(高陽郡守嚴勲功碑)입니다.

2020년 7월 밥할머니공원 내에 예쁜 연못이 조성되면서 창릉동 주민들은 연못 내에 비단잉어를 방생하고, 연못 주변으로는 과일나무와 무궁화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로 인해 밥할머니 석상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잦아졌습니다. 주민들은 이에 머물지 않고 동산동을 한바퀴 도는 4.5Km 길이의 '밥할머니 지혜'로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에 인근 버스정류장 이름도 밥할머니공원 앞으로 변경되었고, 삼송역 3번출구 쪽에는 밥할머니 석상을 알리는 안내문도 설치되었습니다.

[글] 정한선(창릉동주민자치회 밥할머니교육원장)



창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바라 본 상가 모습



스타빌리지 근린공원에 들어선 등나무 터널

2013년, 4층짜리 빌라주택 109개 동으로 조성된 예쁜 마을. 인근에 스타빌드 등 대형쇼핑몰 들어서면서 골목상권 침체로 삶의 터전에서 위기가 느껴. 근린공원을 꽃동산으로 만드는 "공원 리모델링" 추진... 상권 활성화에 기대 걸어

○ 스타빌리지의 탄생

스타빌리지 마을이 있는 동산동(東山洞)은 조선후기에 고양 군청이 고양동에 있었는데, 이곳 고양동에서 볼 때 고양시 동쪽 산 아래 있는 마을이란 의미에서 동산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소 중에 (高陽市, 德陽區)에는 별 (陽) 자가 중복되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 동네는 고양시 동쪽 산 아래 별이 잘 드는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타빌리지'라는 지역명은 2016년 9월 20일 동네 주민들이 모인 회의에서 우리 마을 이름을 짓자고 의논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았는데, ① 용의 기운이 넘쳐흐르는 마을을 상징하는 '동산동 미르골', ② [동산동+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소]인 동산동과 마을을 뜻하는 순 우리말 '마루'를 합쳐 '동산마루', ③ 수많은 별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마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별 마을'을 영어식 표현으로 물이한 '스타빌리지'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 '스타빌리지'가 우리 마을 이름으로 채택되어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스타빌리지 상권

스타빌리지 마을은 '삼송지구' 개발과 함께 근린시설형 상가주택이 들어서며 만들어졌고, 삼각산(북한산)의 수려한 풍광을 배경으로 '호반21단지 아파트', '호반22단지 아파트' '화성파크24단지 아파트' 등과 같이 비슷한 시기에 '스타빌리지' 마을 상가주택이 들어섰고 '동산꽃맞이공원'과 함께 소박하고 예쁜

카페들이 잘 어우러진 이색적인 마을이 형성되어 골목형 상가주택들은 희망을 안고 힘찬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에 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빌드와 농협하나로마트, 은평구 롯데마켓과 세계적 기업인 이케아 등 대형 쇼핑몰이 인근에 들어서면서 상가주택을 중심으로 형성된 스타빌리지 골목상권은 서서히 쇠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대형 쇼핑몰이 속속 들어서면서 스타빌리지 골목상권은 변변하고 활기찬 상가 번영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점차 비워지면서 슬럼화 되어가는 모습에 스타빌리지 마을 주민들은 이전 삶의 터전을 잃을 것 같은 위태위태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 근린공원의 변화

동산꽃맞이공원은 스타빌드에서 호반22단지아파트와 스타빌리지, 화성파크 24단지 쪽 근린공원으로 이어지며 길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스타빌드 쪽 근린공원에는 '별꿈도서관(법학도서관)'과 여러 가지 휴게시설, 포토존 등이 총총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호반22단지 아파트 쪽 근린공원에는 넓은 면적에 군데군데 갖가지 운동기구와 안락한 벤치, 그네의자와 햇볕을 피하며 쉴 수 있는 파고라, 팔각정 등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빌리지와 화성파크24단지 아파트 쪽 근린공원에는 이웃해 있는 공원과 다르게 이렇다 하게 만들어진 시설이 부족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적어 마을 주민들은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무너지고 시들어 가는 스타빌리지 마을이 '으뜸, 최고'의 마을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선 스타빌리지 쪽 근린공원을 꽃동산으로 꾸미는 사업을 통해 봄, 여름, 가을, 겨울 꽃피고 새 지저귀며 먹이가 부족한 눈보라치는 추운 겨울에도 많은 새들이 풍족한 열매를 찾아서 먹이 활동을 하고 사시사철 아름다운 색상으로 물들고 열매로 가득 채워진 꽃동산이 규모 있게 잘 조성해서 되었을 때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즐겁고, 심신을 편히 쉬고, 꽃이 만발한 풍경을 편안하게 느끼고 누리며 힐링을 할 수 있다면 그간 힘 있고 침체해 가던 스타빌리지 골목상권도 새롭고 예쁘게 잘 다듬어진 공원 덕분에 상가주택과 주민들도 함께 다시 힘을 얻고 생동감 넘치게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커다란 소망을 가져 봅니다.

이렇듯 스타빌리지 마을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한 시점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글] 동인혜(스타빌리지 입주인 회장)

용머리 마을 인물과 신앙 공동체 이야기



▶ 용두리 신앙공동체는 나중에 영주성당 용두리 공소가 되었고, 지금은 도례을 성당 관할지역이다.

조선말에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자 박해를 피해 온 천주교인들이 고양 용머리에 살고 있었는데 용머리에서 태어난 원귀임(마리아)과 거주하던 김효임(골롬바)·김효주(아네스) 자매는 1839년 기해박해 때 순교한 동정녀로서 한국 103위 순교성인으로 시성되어 세계 신앙인들에게 공경의 대상뿐만 아니라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용머리는 기해박해 이전부터 천주교 신자들이 교우촌을 이루어 신앙생활을 했던 곳일 뿐만 아니라 병인박해 시기와 개화기·일제강점기 때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해 온 유서 깊은 신앙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원귀임은 1819년에 경기도 고양군 용머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방랑하는 아버지를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녀가 아홉 살이 되었을 때, 한양에 사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고모 원취치아가 그녀를 데려다 기도문과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고모는 원귀임에게 수를 놓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원귀임은 매우 총명하고 신심이 깊었습니다. 그녀의 고모는 원귀임의 신앙심과 충실함을 자랑스러워했으며 원귀임은 15세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곧 그녀에게 혼처가 들어왔으나 결혼하기를 거부하고 이듬해부터 시집간 여자처럼 머리를 올려 쪽머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1939년 기해년 2월에 포졸들이 그녀의 집을 습격했을 때 재빨리 피신하였지만, 그녀를 알아본 이웃에게 천주교인임을 고발당하여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포장에게 심문을 받았는데 "네가 천주교 신자냐?" "예,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천주를 버려라. 그러면 너는 구해줄 것이다." "저는 하느님을 숭배하여 제 영혼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제가 죽어야 한다면, 제 영혼을 구해주실 하느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극심한 주회형으로 그녀의 다리는 뒤틀려 있었으며 계속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녀의 뼈 여러 곳이 탈구되었지만, 그녀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형조로 이송되어서도 여러 차례의 가혹한 형벌과 고문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마음으로 신앙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녀는 약 5개월간의 갇은 옥고 끝에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21세였습니다.

1839년 기해박해가 점차 격화되면서 용머리 신앙공동체에 대한 박해가 3월 20일 단행되었습니다. 이때 김효임·김효주 자매가 체포되어 포도청 옥에 갇혔습니다. 포도

대장은 두 자매에게 배교하고 천주교 서적을 숨겨 둔 곳과 공소 회장인 오빠 김안토니오가 피신한 곳을 대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두 자매는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을 굳세게 증거했습니다. 이에 주회형을 5차례나 가하지만, 두 자매는 태연하게 참으며 끝내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두 자매를 알몸으로 남자 도둑들 옥에 넣었으나, 역시 두 자매는 초인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심문이 끝날 즈음에 김효임이 형조 판서에게 포도청에서 잔인하고 모욕적인 고문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호소하자, 형조 판서가 관련 포졸들을 처벌했습니다. 두 자매는 마침내 사형선고를 받고 김효주는 23세로, 김효임은 27세 나이로 각각 서소문 밖 형장에서 참수형을 받아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순교한 원귀임 마리아, 김효임 골롬바, 김효주 아네스는 1925년 로마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교황 비오 11세가 집전한 79위 시복식을 통해 복자품에 올랐고, 1984년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한국 천주교 창립 200주년을 기념하여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집전한 미사 중 이뤄진 103위 시복식을 통해 성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한편, 1839년 기해박해 때 김효임·김효주 가족들만 피해를 입고 그 밖의 용머리 신앙공동체의 신자들은 무사했습니다. 용머리 신앙공동체는 와해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 용머리에서 원운철과 그의 생질 성연순이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고, 양화진에서 군무효수형으로 순교했습니다. 원운철 요한도 아벽 요한과 동료 132위와 함께 시복 시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 정해현(창릉동주민자치회 부회장)

창릉동(昌陵洞)은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 안에 있는 조선전기의 왕릉에서 그 이름이 유래 되었습니다. 창릉에는 조선조 제 8대 예종대왕과 그의 비인 안순왕후 한씨의 무덤으로 서오릉에서 가장 오래된 왕릉으로 유명합니다.

이 왕릉의 이름을 따서 창릉동에 흐르는 하천의 이름을 창릉천으로 정했고 동의 명칭도 창릉동으로 삼았습니다.

[사진] 김중원(창릉동주민자치회 마을발전분과 위원장)

[자료] 정동일(고양시 역사문화재위원)



용현마을

용두동과 동산동이 경계를 이루는 지역 부근에 있는 지명으로 용두동으로 가는 고개(용고개)라 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발왕손

용두초교 부근에 있는 지명으로 왕릉의 지기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설이 있으나 정확한 유래는 현재까지 알 수 없습니다.



큰골입구

창릉 모퉁이 마을 아래에 있는 마을 이름으로 동산동의 여러 마을 중에서 골짜기가 크고 넓다고 해 붙여진 자연촌락 이름입니다. 골짜기에서는 영봉(매봉)에서 시작된 개울이 창릉천으로 흘러 들어가며 마을의 집들도 산골짜기 안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용사촌

동산동 중촌에 해당하는 마을로 국가와 민족에 헌신한 용사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영봉(매봉)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운하리

용두동에 속한 지명으로 만월산 기슭에 있습니다. 산아래에 있어 구름과 안개가 자주 낀다고 해 붙여진 지명이라 합니다.



능말

서오릉 앞에 있는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왕릉 앞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동산동(東山洞)

삼송동의 동쪽에 위치한 법정동의 명칭으로 고양군청이 고양동에 소재할 당시, 마을의 위치가 동쪽에 있다고 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창릉 모퉁이

동산동의 뒷말에 해당하는 곳으로 창릉으로 가는 길의 모퉁이 (모서리)에서 있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며, 현재 모퉁이 마을 이라고 표기한 안내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벌말입구

용두동에 있는 자연촌락이름으로 벌판 쪽에 새로 생긴 마을 이라고 해 붙여진 마을 이름입니다.

용두동(龍頭洞)

서오릉이 있는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풍수지리 상 용의 머리, 즉 용머리에 해당 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실제로 용을 상징하는 왕의 무덤이 이곳 용두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동마루

동산동에서 용두동으로 가는 길목 중간에 있는 지명으로 멀리 창릉천의 동쪽이 보이는 마루터기(언덕)이라고 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료제공] 정동일(고양시 역사문화재위원, 향토사학자)

창릉(昌陵)에서 유래한 창릉동

서오릉에 세조의 둘째 아들인 예종의 창릉이 첫 왕릉으로 조성되면서 덕수천이 창릉천으로 명칭 변경 되었고 후대에 창릉동이라는 지명도 생겼다. 신도를 동산리와 용두리 그리고 삼송리의 일부가 속하게 창릉동에는 능모퉁이, 비석거리상이용사촌, 용달말, 도당대, 장터거리, 방아다리, 격정머리, 경릉천, 벌고개, 우목골, 성향당고개, 능말 등의 자연부락이 있던 곳이다.

서오릉 매표소에 들어서서 답사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숙종의 명릉과 숙종의 원비인 인경왕후의릉인 익릉을 볼 수 있다. 이어 서오릉에 제일 먼저 조성되었던 예종의 형님 의경세자의 경릉이 나온다.

처음 '의묘'로 만들어졌다가 이후 둘째 아들이 성종이 되자 의경세자는 덕종으로 추존되면서 묘가 경릉으로 승격되었다.

경릉을 지나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도세자의 부친 영조의 원비인 정성왕후의 흥릉이 나온다. 정성왕후의 옆에 묻히고 싶었던 영조가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두었지만 그 뜻은 이뤄지지 못해

흥릉은 오른쪽이 비어있는 우허제릉으로 남아있다. 흥릉을 지나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창릉이 나온다. 동원이창릉으로 정자각 앞에서 바라보았을 때 왼쪽 언덕(서쪽)이 예종, 오른쪽 언덕(동쪽)이 안순왕후의 능이다. 형인 의경세자와 12살 차이이며, 의경세자가 20세에 사망하자 8세의 나이에 왕세자가 되었고 19살에 세조의 선위를 받아 왕위에 올랐고 즉위 다음날 부친 세조는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즉위한 예종은 재위 1년 2개월 만에 형 의경세자처럼 2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예종은 1450년에 태어나 11살에 한명회의 딸 한씨를 세자빈으로 맞이해 이듬해에 원손 인성대군을 낳았지만 산후병으로 세자빈 한씨가 죽고, 인성대군도 3살 때 풍질로 죽었다. 삼년상을 마친 후 한백륜의 딸 한씨가 후궁으로 간택되었고 즉위 후 왕비로 책봉된 안순왕후는 예종보다 30년을 더 살고 예종 곁으로 갔다. 예종의 죽음을 암시하듯 새벽에 까치가 울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효자로 이름난 예종은 세자시절 세조가 병환이 생기니 수라상을 보살피고 약을 먼저 맛보며 밤낮으로 곁을 지키며 한잠도 못 잤고, 즉위 후 하루만에 세조가 세상을 떠나자 슬픔이 지나쳐 마침내 건강을 해치게 되어 이 해 겨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예종은 패륜을 저지른 아버지 세조의 묘호를 할아버지 세종보다 더 높은 의미를 담은 '세조'로 올리며 찬양했다고 한다.

고양시에는 고양이신문 '야옹이신문'이 있다!



고양시는 일산보다 덜 알려졌지만, '고양고양이' 캐릭터로 인해 그나마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다.

고양시가 고양이로 덕을 보고 있는 것은 '고양고양이' 뿐만 아니라 속종이 사랑해 서오릉의 명를 옆에 묻혀 있다는 충묘 '금손이', 여기에 고양이 전문 언론매체인 '고양이뉴스'(www.catnews.net)와 '야옹이신문'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인터넷신문 '고양이뉴스'와 지면신문 '야옹이신문'은 지난 2015년 창간, 고양이의 밝고 긍정적인 행복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일반 대중에게 고양이와의 특별한 유대감을 공유하고 책임감 있는 동물 관리와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반려동물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 구성원으로, 사랑과 관심을 통해 행복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과 배려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보다 책임감 있는 동물 보호와 관리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소망해서 벌써 9년째 발행을 이어오고 있다.

인터넷신문 '고양이뉴스'는 언론매체이기보다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사이트처럼 운영돼 독자들이 글도 올리고, 댓글로 응원도 하는 곳으로 매일 5천 명 이상이 방문하는 핫한 사이트가 됐다.

지면신문 '야옹이신문'은 월간 발행되고 있으며, 매월 표지는 고양이 작가들이 후원해 주는 형식이어서 매월 작품을 감상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표지에 작품을 실으려면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할 정도로 고양이 작가들에게는 꼭 거쳐야 하는 매체가 되기도 했다.

한편, '고양이뉴스'와 '야옹이신문'을 발행하는 사회적기업 '나루코(주)'는 콘텐츠 기업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행신2동 주민자치회와 함께 산책로에 고양이 조형물을 만들어 포토존으로 활용, 고양이마을 만들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밖에도 '고양고양이'가 고양시에서 퇴출당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담아 '고양고양이 퇴출되나?'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시작하기도 했다.



정월대보름 연날리기 한마당 개최

창릉동주민자치회는 지난 2월5일(일)에 한국전통연보존협회와 함께 창릉천 세솔교 부근 둔치에서 정월 대보름 연날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참여해 탁 트인 야외에서 소원을 담은 연을 하늘로 날려 보내며 코로나 19로 지쳤던 몸과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는 시간을 가졌다. 창릉동주민자치회는 참여한 시민들에게 300개의 연 만들기 재료와 600인 분의 소고기 떡국과 김치, 그리고 200인분의 어묵탕을 제공했고, 행사장 한쪽에서는 전통 옷놀이를 할 수 있는 체험장도 마련해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전통 옷놀이도 즐길 수 있었다. 이번 행사의 비용 대부분은 창릉동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준비했다.

밥할머니공원에 무궁화나무 300그루 심어

창릉동주민자치회는 지난 4월 8일(토) 밥할머니공원에 서 무궁화 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아이들아, 밥할머니 공원 다듬고 놀자!'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다둥이 가족과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전년도 250그루에 이어 올해는 300그루의 무궁화나무를 연못 주변에 식재했다. 그리고 연못 근처에 페튜니아 300본도 함께 심었다. 또한, 경기민요 명창(신원숙, 이준례)을 초대해 '밥할머니 아리랑'을 배우고, 제기차기와 투호놀이 등 전통놀이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창릉동주민자치회 밥할머니교육원(원장 정환선)이 담당했으며, 주민자치 위원들도 30명 가까이 참여해 시민들의 안전과 무궁화나무 식재를 도왔다.





창릉동 행복한 음악회 개최

창릉동주민자치회는 지난 7월 22일(토) 창릉천 동송교 아래 둔치에 조성된 밥알머니버스킹 공연장에서 행복한 음악회를 개최했다. 무더위를 피해 오후 시간에 개최한 이번 음악회는 약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콘서트에는 앙상블 노엘(대표 조예은 소프라노)의 A Whole New World (알라딘 OST), Under the Sea(인어공주 OST), 지금 이 순간(지킬 앤 하이드 중), Think of Me(오페라의 유령 중), 나를 태워라(뮤지컬 '이순신' 중),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오 솔레미오, 나만 믿어요, 편이야, 아름다운 나라 등의 격조 높은 공연이 진행되어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번 행사는 창릉동주민자치회 행복나눔분과위원회(위원장 장명성)가 담당했다.

제4회 반려견 생활수칙 안내 행사 개최

창릉동주민자치회는 지난 6월 24일(토) 밥알머니공원 주변에서 '덕구야, 밥알머니공원에 산책 가져' 행사를 진행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 수가 많은 창릉동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창릉동주민자치회의 특화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반려견의 생활 수칙을 홍보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줄이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반려견 가족 50여 팀이 참여했으며, 밥알머니공원 산책로의 총 4개 지점에서 반려견 에티켓 관련 퀴즈를 풀며 반려견 생활 수칙을 배우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또한 반려견 행동치료를 배치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창릉동주민자치회 환경안전분과위원회(위원장 강정화)가 담당했다.



제4회 창릉동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창릉동주민자치회는 9월16일(토) 행정복지센터에서 '창릉동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 제4회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동산꽃밭 이공원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내린 비로 인해 행정복지센터 청사 내에서 개최했다. 관내 초등학교생 1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아름다운 우리 마을 창릉동'을 주제로 우리 마을의 역사 문화 이해를 통해 마을 정체성을 확보하고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기에 주력했다. 이후 미술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10월 3일(화)에 개최한 창릉동 마을축제에서 고양시장상, 국회의원상, 시의회의장상 등의 시상식을 가졌으며, 작품집도 발간했다. 이번 행사는 창릉동주민자치회 미래참여분과위원회(위원장 한주희)가 담당했다.

올해에도 창릉동 독서동아리 3기수 배출

창릉동주민자치회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창릉동 독서 동아리 3기수를 배출했다. 2023년도 독서 동아리는 6월부터 9월까지 매 기수 4회씩 총 12회의 모임을 가졌다. 올해 배출된 동아리는 4기부터 6기로 편제되었으며, 이에 작년보다 올해까지 약 50명의 독서 동아리 회원이 배출되었다. 기수 당 도서는 두 권씩을 정해 다뤘는데, 이 중 한 권은 주최 측에서 제공했고, 한 권은 참가자들이 구매해 진행했다. '손이 들려준 이야기들'을 기본 교재로 정하고, 각 기수별로 '이 세상 최고의 딸기', '적당한 거리', '느끼는 대로' 등의 그림책을 선정해 다뤘다. 진행은 구자란 독서지도사가 맡아 수고했으며, 창릉동주민자치회 밥알머니교육원(원장 정환선)이 담당해 진행했다.



창릉동주민자치회 경기도 대회 우수상 수상

창릉동주민자치회는 지난 4월 4일(화)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 내 15개 시군이 참가했으며, 고양특례시에서는 우리 창릉동이 열린 경합을 거쳐 참가했다. 발표 주제는 '3C 솔씨 학습체계로 마을 꿈 리더 양성'로써 '마을과 마을을 잇는 창릉동 산책길 개발', '드라이브 방식으로 개최한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마을 역사와 융합한 반려견 에티켓 사업', '창릉천 그늘막 양동이 콘서트' 등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심이 된 사업들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우수상과 함께 2,000만원의 상금을 획득했다. 창릉동주민자치회는 이번 상금으로 그동안 고생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강릉 1박2일 워크숍을 다녀왔으며, 부녀회와 함께 고추장 300Kg을 담가 마을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으며, 마을 역사 바로알기 과정을 진행해 20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창릉동 주민자치회는 고양특례시에서 가장 오래된 주민자치회로서 많은 이웃 주민자치회에서 벤치마킹을 오기도 한다.



2023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 수

우수사업비 2,000만원

변화의 중심 기획의 경기



제5회 창릉동 주민총회 개최 총 9개 자치사업 채택

창릉동주민자치회는 지난 9월 20일(수)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창릉동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2024년도 마을 의제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총회는 내외빈 소개, 개회인사를 시작으로 2023년 주민자치회 사업 활동 보고, 2024년 마을 의제 사업 설명 및 투표, 개표결과 발표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총회는 창릉동 관내 아파트, 단독주택단지, 웹사이트 등에서 주민의제 청취를 통해 총 6개의 의제에 찬반투표를 현장에서 실시하고, 9월 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사전 투표 결과와 합산해 최종 의제 사업을 결정했다. 최종 선정한 2024년 마을 의제 사업은 '창릉동 물소리 콘서트', '창릉동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창릉동 커뮤니케이션 공감 플러스', '함께 걸으며 만드는 이야기 동산', '반려견 에티켓 교육', '밥할머니 역사 학습' 총 6개와 '창릉동 마을 축제', '창릉동 마을신문 만들기', '창릉동 주민총회' 등 3개의 기본 사업을 더한 총 9개이다. 이번 행사는 창릉동주민자치회 주민소통분과위원회(위원장 동안해)가 담당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웃마을과 연대한 창릉동 축제 '풍성'

창릉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0월 3일(화) 동산 꽃맞이공원 너른 뜰에서 '2023년 창릉동 마을축제'를 열었다. 이번 마을 축제는 '제9회 창릉동 용머리 축제'와 고양밥할머니보존회와 함께 준비한 '제1회 의병장 밥할머니 축제'를 동시에 실시하며 큰 관심과 호평을 얻었다. 또한, 이번 축제는 창릉동 뿐만 아니라 덕양구주민자치협의회와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돼 이웃 마을들과의 연대를 통한 지역축제가 됐다. 앞으로 "북한산 노적봉에서 행주산성에 이르는 창릉천을 공유하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축제"로 승화시키겠다."는 창릉동주민자치회 임현철 회장의 의지가 잘 녹아든 축제였다.

제9회 용머리 축제

'제9회 창릉동 용머리 축제'는 주요 이벤트였던 '창릉동 문화 동아리 발표회'를 중심으로 삼았다. 한국 무용, 오카리나, 노래교실, 우쿨렐레, 댄스 동아리 등 모두 14개 팀이 참가해 열띤 공연을 펼쳤다. '창릉동 어린이 벼룩시장'은 125가족이 참가하며 큰 성황을 이뤘다. 또한, '창릉동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수상작 전시회'에는 50개 작품이 출품되면서 이를 응원하고 구경하러 온 많은 인파가 몰려 축제 현장을 북적이게 했다. 축제 먹거리장터에 참가한 한 상인은 "여러 곳에 축제를 다녀봤는데, 이곳에서 최고의 매출을 올렸다."며 기분 좋아 하기도 했다.



제1회 의병장 밥할머니 축제

'제1회 의병장 밥할머니 축제'는 '정성 깃든 나만의 밥상 차리기'와 '밥할머니 행주치마 부대 퍼레이드', 덕양구주민자치협의회 소속 직접 '흥미진진한 체험코너'를 운영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정성 깃든 나만의 밥상 차리기'는 참가자들이 밥을 준비하고 주최 측에서 반찬을 제공해 초청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프로그램이다. '나만의 밥'이라는 콘텐츠에 걸맞게 참가자들은 저마다의 솜씨와 정성을 들인 연잎밥, 나물밥, 잡곡밥 등을 준비했다. 여기에 주최측은 배추김치, 된장국, 소불고기, 멸치아몬드볶음, 시금치나물, 김 등 반찬을 도자기 그릇에 담아



제공하며 격을 높였다.

참가한 50개 팀은 노란색의 식탁과 레드카펫이 깔린 별도 장소에서 '심애원 원생들의 클래식 합주'와 '7080 콘서트'를 들으며 맛있는 식사를 함께 했다. 7080 콘서트에는 강변가요제에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마음과 마음'이 출연해 '그대 먼 곳에' 등의 감미로운 노래를 선사했다. 특별한 밥상은 연잎밥을 지어온 화정2동의 김지영 씨가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밥할머니 행주치마 부대 퍼레이드는 행주치마로 돌을 날라 권을 장군이 행주대첩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구전을 토대로 '무명용사 행군대열'을 꾸려 행주대첩에 참가했던 부녀자들의 일을 기리는 행사였다.

출발 지점에서 '제1대 밥할머니'로 선발된 최영희(72세) 씨가 "행주치마 부대 출정"을 외치며 시작된 퍼레이드는 고양문화원의 취타대를 선두로, 고양시무용협회 단원들, 고양시문화재지킴이 대원들, 그리고 창릉동 주민들과 나라찬태권도장의 원생들, 세솔풍물패 단원들까지 모두 100여 명이 '밥할머니지혜로' 3km의 구간을 걸었다.

축제에 또 하나 특별한 것은 덕양구주민자치회 소속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참여해 '흥미진진한 체험 코너'를 운영한 것이다. 효자동주민자치회는 수채 캘리그라피, 삼송1동주민자치회는 어린이 시화전, 화정2동주민자치회는 페이스 페인팅과 밥할머니 손수건 만들기, 화전동주민자치회는 키다리 풍선 아저씨, 행신2동주민자치회는 여□□□입법만들기와 KTX 행신역 출발 증차 캠페인, 행주동주민자치회는 나도 모델 워킹 등으로 체험 코너를 운영했다. 이외에도 협동조합 행호유람의 신기전 만들기, 전통연보존협회의 우리 연 만들기, 민속진흥원의 전래놀이, 한국협회의 한국소리 등의 체험장이 마련돼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는 "다른 마을의 축제에 참여해보니 마을끼리 연대할 때 더욱 의미있는 행사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창릉동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의 '뚜렷한 목표와 정성어린 준비가 성공적인 새로운 축제의 모델을 만들어 낸 원동력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금] 이옥석(고양신문 기자)

통장협의회

대표 : 진경선

인원 : 23명

주요임무

- 주민 의견수렴 및 행정기관에 전달
- 행정시책 홍보 및 동정업무 추진 지원
- 거주 이동사항 파악 등



새마을부녀회 지도자회

대표 : (부녀회) 권상숙, (지도자회) 박광희

인원 : 15명

주요임무

-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한 지역봉사활동
- 경로잔치 및 독거어르신 지원사업 추진
- 기타 지역 복지·사회·환경보전 운동 등



자율방범대

대표 : 오경열

인원 : 32명

주요임무

-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 순찰활동
- 경찰 치안업무 협조·지원
-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 복지증진 활동 등



시민안전지킴이

대표 : 이화자

인원 : 10명

주요임무

- 시민안전문화운동 전개
- 안전생활 위험요소 점검 및 신고
- 여성 및 청소년 안심귀가 서비스 지원 등



방위협의회

대표 : 김형운

인원 : 18명

주요임무

- 예비군 육성·지원 및 항방작계 훈련 지원
- 안보견학 및 안보문화캠페인 활동
- 기타 지역안보 고취 활동 등



청소년지도협의회

대표 : 진동수

인원 : 5명

주요임무

- 청소년 보호·선도 활동
-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정화 활동
-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 장미상

인원 : 15명

주요임무

- 복지대상자, 취약계층 발굴·지원 사업 추진
-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발굴
-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특화사업 추진 등



체육회

대표 : 허준강

인원 : 8명

주요임무

- 지역단위 체육 친선 경기 개최 및 운영
-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육성사업 추진
- 고양시 시민의 날 체육대회 준비 및 참여 등



2024년 1/4분기 창릉동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안내



창릉동주민자치회는 2024년도에도
다양한 내용의 문화강좌를 개설해 주민여러분의 참여와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02-381-9731

강좌명	요일	시간	모집인원	강의실	수강료(3개월)
아동미술(6,7세)	화	16:00~16:50	15명	2층 문화강좌실2	6만원
아동미술(5,6세)	수	16:00~16:50	15명	2층 문화강좌실2	6만원
노래교실 월요반	월	11:00~12:30	40명	4층 대회의실	6만원
노래교실 화요반	화	09:30~11:00	40명	4층 대회의실	6만원
바리스타 자격증 준비반	금	10:00~12:00	12명	2층 문화강좌실2	6만원
시니어 스마트폰교실(초급)	화	10:00~11:30	15명	2층 문화강좌실2	6만원
연필풍경드로잉(중급)	화	14:50~16:20	22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연필풍경드로잉(초급)	화	16:20~17:50	22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꽃그림(보타니컬아트)	목	15:00~16:20	22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오카리나(초급)	월	09:00~09:50	15명	2층 문화강좌실2	6만원
오카리나(중급)	월	10:00~10:50	15명	2층 문화강좌실2	6만원
오카리나(고급)	월	11:00~11:50	15명	2층 문화강좌실2	6만원
우쿨렐레(초급)	수	09:00~09:50	20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우쿨렐레(중급)	수	10:00~10:50	20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우쿨렐레(고급)	수	11:00~11:50	20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통기타교실(중급)	목	09:30~10:30	20명	4층 대회의실	6만원
통기타교실(초급)	목	10:30~11:30	20명	4층 대회의실	6만원
통기타교실(입문)	목	11:30~12:30	20명	4층 대회의실	6만원
캘리그래피	목	09:30~10:40	18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한글서예	목	11:00~12:10	15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한문서예	수	13:00~15:00	15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스마트폰 및 컴퓨터활용	월	09:00~10:30	17명	2층 컴퓨터실	6만원
파워포인트 및 광고디자인	월	10:40~12:10	17명	2층 컴퓨터실	6만원
엑셀(컴활2급실기포함)	수	09:00~10:30	17명	2층 컴퓨터실	6만원
한글(ITQ포함)	수	10:40~12:10	17명	2층 컴퓨터실	6만원

강좌명	요일	시간	모집인원	강의실	수강료(3개월)
난타(초급)	금	09:30~10:20	30명	4층 대회의실	6만원
난타(중급)	금	10:30~11:20	30명	4층 대회의실	6만원
댄스스포츠 · 자이브 기초	월	09:00~10:10	25명	3층 요가실	4만5천원
댄스스포츠 · 룸바	월	10:10~11:20	25명	3층 요가실	4만5천원
댄스스포츠 · 자이브 고급	금	11:30~12:50	30명	4층 대회의실	4만5천원
댄스스포츠 종합반	금	13:00~15:00	30명	4층 대회의실	6만원
라인댄스(초급)	월/수	09:00~09:50	35명	4층 대회의실	6만원
라인댄스(중급)	월/수	10:00~10:50	35명	4층 대회의실	6만원
왈츠(중급)/탱고(초급)	월	14:00~15:20	30명	4층 대회의실	6만원
왈츠(상급)/탱고(중급)	수	14:00~15:20	30명	4층 대회의실	6만원
웨빙댄스(상급반)	월	15:30~17:20	30명	4층 대회의실	6만원
웨빙댄스(중급반)	수	15:30~17:20	30명	4층 대회의실	6만원
밸리댄스	목	10:00~11:50	25명	3층 요가실	6만원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1	수	09:50~11:00	25명	3층 요가실	6만원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2	금	11:30~12:40	25명	3층 요가실	6만원
요가·화	화	10:00~11:20	25명	3층 요가실	6만원
요가·금	금	10:00~11:20	25명	3층 요가실	6만원
필라테스(매트)	월	11:30~12:20	25명	3층 요가실	6만원
필라테스(소도구)	수	11:30~12:30	25명	3층 요가실	6만원
한국무용(중급반)	화	11:30~13:00	20명	4층 대회의실	6만원
한국무용(장구작품반)	화	13:30~15:00	20명	4층 대회의실	6만원
영어(생활영어기초)	목	10:00~11:30	17명	2층 문화강좌실2	6만원
영어(차근차근기초)	목	11:30~13:00	17명	2층 문화강좌실2	6만원
영어(왕초보영어)	목	13:00~14:30	17명	2층 문화강좌실2	6만원
원어민영어(초급)	월	12:30~13:20	25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원어민영어(중급)	월	13:30~14:20	25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원어민일어(회화초급반)	금	09:00~09:50	20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원어민일어(회화중급반)	금	10:00~10:50	20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원어민일어(중급반)	금	11:00~11:50	20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원어민일어(초급반)	금	12:00~12:50	25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원어민중국어(중급)	월	09:30~10:20	20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원어민중국어(초급)	월	10:30~11:20	20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원어민중국어(왕초급)	월	11:30~12:20	20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원어민중국어(초급회화)	화	09:30~10:20	20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원어민중국어(중급회화)	화	10:30~11:20	20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창릉천 친수시설 조성 중



창릉천 동송교와 덕수교 사이 둔치(창릉동 방향)에
발물놀이터 및 족욕장, 바닥분수, 앉음벽, 이동식 화장실,
옥외 샤워시설 및 세족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4년도 5월 22일 준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에 있다

첫눈 내리는 밥할머니공원



창릉천 독길에 들어선 벚꽃 터널



앵봉산 얼레길 안내판



지난여름 불어난 창릉천

